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5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1



▶한줄 요약
아디카야의 검을 찾아나선 이 기자 일행은 마침내 검이 있다는 전설의 장소인 아이슈 무쿠암에 도착한다. 하지만 아이슈 무크암의 모습은 이 기자 일행이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드디어 아이슈 무쿠암…전설에 다가가다

노트 속의 잔영이 너무 강열했던 탓일까?

화사한 햇살이 멍석만큼 뜰 한쪽에 떨어진 것이 보였다.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비고 들어선 햇살. 아아, 햇살 속에 노트에서 보았던 난타가 서 있었다.

유독 그가 서 있는 곳만이 따스해 보였다. 나는 그곳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왜 이래? 왜 이러지? 분명히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았나?

부엌에서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왜 그러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어머니군요!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러니?

-저분에게 가야겠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햇살 속에 서 있는 난타를 바라보았다.

-누구라고? 아무도 없잖니?

그러고 보니 아무도 거기 없었다. 그가 서 있던 곳에 햇살만이 가득했다.

-저 햇살 속으로 갔으면 해요.

어머니가 웃으며 햇살이 떨어진 곳에 데려다주었다. 이외로 햇볕이 따가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에 부셨다.

눈을 뜨기가 무섭게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이것도 꿈인가? 문득 이석원의 모습이 눈앞에 달라붙었다. 그도 여기로 왔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왔듯이 그렇게 왔을 터인데….

밖엔 꿈속과는 달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고색창연한 무성한 숲을 때리며 멈출 줄을 몰랐다. 황갈색의 덤불이 깔린 계곡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감나무 밑에 서서 어머니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뜰 한 쪽에 있는 대추나무가 봄이 되었는데도 싹이 트지 않았다.

-다른 생물들은 어느새 꽃들을 피우기도 하는데 아직 잎도 열 생각도 안 하네요?

-모든 것은 때라는 게 있는 법이란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비가 오는 걸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상스런 불길함이 스멀스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챘다. 하필 무쿠암으로 떠나려는 날 비가 오다니. 비안개에 젖은 선정이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저것은 원숭이 울음소리인가?

숲 너머로 비에 젖은 원숭이들이 불결한 털을 털어 대며 우는 것이 분명했다. 원숭이들이 느낌을 증명하듯 이리저리 건너뛰는 모습이 보였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콧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건 분명 비에 젖은 숲 냄새였다.

잠시 후 비가 서서히 그쳤다. 햇살이 검은 구름장을 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빗소리가 사라져 버린 주위가 섬뜩했다. 무한한 공간 속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점차 투명한 빛이 산등성이로 쏟아졌다. 밀림도 비로 인해 생기를 찾았다. 검게 그을린 빛이 물러가자 맑고 투명한 빛발이 되었다. 수묵화처럼 보이던 산골짜기가 뚜렷이 떠올라 마치 한 폭의 미세화를 보는 것 같다.

비가 온 뒤의 신선한 공기가 콧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산정으로부터 내려온 바람이 호숫가의 풀잎들의 머리를 휘돌았다. 색색으로 뒤엉킨 산정이 어느 사이에 어떤 범치 못할 무늬로 수놓아져 신령스럽다.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2

-아이슈 무쿠암까지 가는 차를 찾아야겠습니다.

자빠디를 씹으며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그곳까지 가는 차를 찾기 시작했다. 없었다.

-전에는 지프를 전세 내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프를 전세 내기로 했다. 숙소 주인 여자가 수염이 시커멓게 난 인도인 한 사람을 데려왔다. 차 주인이라고 했다.

-왜 그곳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말해야 하오?

차 주인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얼마면 되겠소?

-한 60킬로쯤 되니 3,000루피는 줘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포장도 안 된 숲길을 지프는 계속해서 달렸다. 나는 주위의 풍광을 살피며 흔들렸다. 문득 노트에서 만난 난타와 손타라의 모습이 나름대로 그려지며 떠올랐다. 햇살이 화사하다. 스쳐 가는 숲 더미 사이로 비비고 들어선 햇살이 어느 한순간 나를 안았다.

오오스마 기자가 잡다한 생각을 떨치고 한숨 자야겠다는 듯이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한동안 계곡이 이어졌다.

얼마나 갔을까. 구렁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사방을 둘러보던 오오스마의 시선이 한곳에 붙박였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모세의 돌입니다.

느닷없이 오오스마가 손가락을 창날처럼 세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의 어딘가를 가리켰다.

너무 멀어서인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 뾰족한 것인가?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어쨌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부르지요.

-그럼 모세도…?

모세도 여기 왔느냐는 어투로 내가 묻자,

-여기 왔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하하하고 송 서화가가 웃었다.

-이 나라도 어느 나라와 비슷하네. 유명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기는 게. 세종대왕도 제 나라 사람이고 강감찬도 제 나라 사람이고 하하하….

문제의 무쿠암은 비즈하라로부터 꼭 13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이슈 무쿠암입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평지에 둥그렇게 솟아오른 건축물을 가리켰다. 큰 바위 같았다. 큰 바위가 불쑥 솟아올랐다. 푸른 이끼도 아니고 잿빛 이끼가 덮인 바위였다. 바위 주위는 지지한 잡풀이 둘러쌌다. 희끄무레하다고 해야 할지 검으티티하다고 해야 할지 바위는 어쩐지 음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주위가 더 황량해 보인다. 분명 버려진 벌판이었다.

저곳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소문이 날 정도라면 최소한도 철조망이라도 쳐져 있어야 할 터인데 철조망은커녕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성지는 그대로 방치된 것이 분명했다. 속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헛소문이었나?

-바위 아닙니까?



송 서화가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저 바위 뒤쪽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동굴 안에?

내가 물었다.

-맞습니다.

차가 바위 앞에 멎었다.

-전에 왔을 땐 군인들이 보초를 서 있었는데….

오오스마가 고개를 갸웃대며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그가 바라보는 곳에 군인들이 머물다 간 듯한 잔재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것이 보였다. 폐기된 군용 천막들, 녹슨 철재들, 부서진 의자와 침대들…. 그 어디쯤 폭삭 내려앉은 판잣집이 한 채 보였다.

-잠시 기다려주실래요? 도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요금은 적당하게 드릴게요.

차에서 내리면서 내가 기사에게 말했다.

-알았수다.

별사람들도 다 있다는 듯이 말이 없던 기사가 대답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어대는 송 서화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바위 뒤로 돌아갔다. 여전히 철조망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이 아니라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바위 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동굴 입구가 보였다. 자연적으로 뚫린 것인지 인위적으로 뚫은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이석원이 문득 생각났다. 그가 여기로 왔다면 어디쯤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전엔 저 판잣집에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말하며 오오스마 기자가 폭삭 무너진 판잣집을 바라보다가 먼저 동굴 앞으로 다가들었다.

-다 철수한 모양입니다.

동굴 입구까지 완전히 다가들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투로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송 서화가와 내가 오오스마 기자 가까이 다가갔다.

-왜 이곳을 무쿠암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쉴 장소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말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송 서화가가 물었다.

-맞습니다. 무쿠암 앞에 아이슈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슈 무쿠암?

내가 뇌까렸다.

-차에서도 말했지만, 이곳은 이번 사건이 나기 전에 예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동안 이곳에서 칩거하며 명상했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분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증거나 기록은 사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요?

송 서화가가 눈을 빛내며 되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옥좌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솔로몬의 옥좌?

송 서화가가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수 세기의 비바람을 견뎌내고도 그 글귀는 지워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어디에 솔로몬의 옥좌가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언자인 예수이니라' 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술탄통치 동안 살았던 역사학자 몰라 나디리(mullah nadiri)라는 사람이 카슈미르에 관한 역사의 책에서 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뒤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으로 왔으며 자신이 예언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과 미덕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곧 메시아이며 밤낮으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카슈미르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힌두족들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골짜기에서 일생을 보냈으며 죽은 뒤 모하라 안지마라에 묻혔다는 겁니다.〈계속〉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